

김경수 무죄 판결나면...민주 대권구도 '빅뱅'

6일 항소심 선고... '이낙연 지지 친문' 김지사로 이동 예상 양강 구도 흔들...정총리 여의도 복귀 땀 대권레이스 조기 점화

오는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친문·친노 핵심 인사로 손꼽히는 김 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고 '정치적'으로 살아날 경우,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으로 흘러가던 민주당 대권 구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친문 세력이 김 지사 부활 이후 누구를 지지할지 여부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와 이 지사로 나눠졌던 친문의 지지층이 김 지사에게로 흘러 간다면 이 대표와 이 지사의 당내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김 지사의 당내 지지율이

치솟지 않더라도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양강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지녔다는 게 당내 평가다. 또 김 지사를 향한 친문의 결집이 가속화하면 양강 구도를 넘어 순위가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내에서는 재판 막바지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김 지사의 무죄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지역 한 국회의원은 1일 "뒤잡비 포장 증언으로 김 지사가 다소 유리해진 측면이 있고, 앞선 이재명 지사의 판결처럼 '김 지사의 부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가 이번에 무죄를 받는다면 잠재적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최종심까지 시간이 남기는 했으나 무죄 직후 지지도 조사에서 5% 안팎을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권에서도 김 지사의 부활 여부는 최대 관심사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이날 "김 지사는 민주당의 열세 지역인 경남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 당으로서 매력적인 카드다"면서 "김 지사 아내가 전남(신안) 출신이다 보니, 그의 부활 여부에 따라 호남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지지율이 정체 국면인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는다. 1위 자리를 놓고

박스권에서 앞지락뒤지락 하는 상태에서 제3의 후보가 급부상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한 구도다. 지난 4월 총선 때 40%를 기록했던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 최근 20% 초반에 머무는 상황이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상승세를 타다 25% 수준에서 주춤하는 형국이다. 또한 개각과 맞물려 정세균 총리까지 여의도에 복귀할 경우, 대권 레이스가 조기 점화하며 혼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반면, 김 지사가 2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지 못한다면 현재 친문의 일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합상훈 김민기 하대법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로 예정됐으나 추가 심리 필요성

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일당과 짜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지방선거 때까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면서 2017년 해 말 오사가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선데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기에 경례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박경준 변호사(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이현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9일까지 예비후보 제시

위원장에 조재연 선출...박의장 "빠른 시일내 후보 추천 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을 뽑는 절차가 본격화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었다.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이다. 박 의장은 위촉식에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한 시일 내 추천해주시길 기대한다"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패 적절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이현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수처장 추천 방식과 일정 같은 세부 규정 사항을 결정했다. 한 참석자는 공정성 문제를 고려해 "추천위원 대부분이 조재연 처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위원별로 5명 이내의 후보를 당사자 사전 동의를 받아 제시하도록 했다. 제시 기한은 11월 9일 오후 6시다. 두 번째 회의는 2주 뒤인 11월 13일에 열린다. 실무 지원단이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제시된 후

보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1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날 첫 회의는 큰 의견 대립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이 대법관 추천위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공모 형식 등으로 각계의 천거를 먼저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규정상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회의에서는 제시된 후보들의 자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리전 성격이 띠어 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장 주요 후보로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변호사, 이우규 전 법무부 법무실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거론된다. 여성 중에는 조현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하마평에 오른다. /연합뉴스

추장관에 반발 검사들, 집단행동으로 이어질까

秋 비판글에 230여명 실명 댓글 2012년 '검란' 재연 우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검사들의 개별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고 있으나 일각에선 과거 벌어졌던 '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에 반발하는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검찰 내부망 글에 지난달 29~30일 달린 실명 댓글은 모두 230여 건에 달한다.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이현우 제주지검 검사를 사물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혁만이 답"이라며 저격한 직후 이를 동안 벌어진 일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댓글이 지난 2012년 '검란' 당시 검사들이 검찰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며 집단행동에 나설 때 떠올린 '연판장'과 사실상 비슷한

의미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일각에서는 '자성론'도 없지 않다. 임은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의 향배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결과와 여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이 2018년 유폴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윤 총장의 측근·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결과 별다른 비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검찰에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면서 추 장관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반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나 담당 수사팀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정황이 나타난다면, 검사들의 반발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윤영덕 의원 "사립대 10곳 중 6곳 법인서 총장 임명"

사립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이 법인에서 총장을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현황' 자료를 제출한 93개 사립 일반대의 총장선출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61.3%(57교)가 법인에서 직접 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대학 중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6교(6.5%)로, 이 가운데 교직원단 직접선거로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대학은 2교,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다양한 대학구성원이 직접 선거로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대학은 4교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총장선출에 있어 법인 임명제가 아닌 간선제나 직선제를 채택하는 사립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며 "그러나 여전히 법인 임명제를 고수하는 대학이 다수인 만큼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총장선출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추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